

문대통령-김정은, 무개차 카퍼레이드...평양시민 환영

공항-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영빈관

3대혁명전시관 앞서 내린 문대통령-김정은 함께 무개차 올라

한복입은 北여성, 문대통령에 꽃다발...평양시민들 '조국통일' 외쳐

평화, 새로운 미래

북한은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수만 시민을 동원하고 카퍼레이드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무진에 올랐으나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해 평양 시민의 연도 환영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연도 환영은 순안공항-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영빈관까지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3대혁명전시관 주변에서 멈춰 서자 한복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넘겨받았다.

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이어 무개차에 동승했다.

정장과 한복 차림의 평양 시민들은 도로 옆에 늘어서 꽃과 인공기·한반도기를 흔들며 '조국통일'을 외쳤다.

21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무개차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 손을 높이 흔들며 좌우에 늘어난 환영 인파 얼굴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었고, 김 위원장은 가끔 손을 내리기도 했다. 퍼레이드 도중 두 정상은 종종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두 정상 도착에 앞서 연도에서 기다리다가 문 대통령이 받은 화환을 행하는 등 직접 의전활동을 했다.

북한 정권의 성과물을 전시한 3대혁명전시관을 뒤로한 버드나무거리를 출발한 남북 정상은 이어 지하철역인 전우역과 지하철도사적관인 '전승혁명사적관'이 있는 룡상사거리쪽에서 려명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2016년 새롭게 화려하게 조성됐으며 입구에는 북

한 유일의 인문기념제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전용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

려명거리 주변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 집무실 및 저택이었고, 이 때문에 려명거리 조성 이전에는 김 주석을 전양하는 '금성거리'로 불리기도 했다.

려명거리를 지나면 울창한 수림 속에 문 대통령이 방북기간 목계 될 백화원영빈관이 자리하고 있다.

백화원영빈관은 북한을 찾는 국가수반급 외빈 숙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곳에서 묵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이동 경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도 환영 거리와 비교하면 거리가 짧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버드나무거리에서 평양도심까지 두루 돌아 숙소로 향했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경우 평양 도심 무개차 퍼레이드를 생략했다.

평양 도심을 다 거치기에는 거리와 시간

의 제한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무개차 연도 환영은 외국의 국가수반 급 중에서도 국빈급인 경우 행해진다.

북한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60만 평양시민을 동원해 연도 환영행사를 치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직접 김 대통령과 함께 리무진에 올라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갔다.

당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에 무개차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나 남측이 경호를 이유로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김 전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원래는 무개차를 이용토록 하려 했는데 남측이 반대해 이용하지 못하게 돼 아쉽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무개차에 올라 환영을 받았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 방북한 외국 대통령을 연도에서 환영하는 행사를 자주 가졌다. 그러나 김정일 집권 시기 무개차 퍼레이드는 2001년 9월 방북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가 유일할 정도다.

/김태엽 기자 esaca@



남북 정상, 무개차 타고 카퍼레이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향하며 평양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전남도,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청사진 제시

'2018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에서 국가시범도시 최적지 홍보

전라남도는 20일까지 3일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에서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비전을 선보인다.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서남해안권 전체의 관광자원에 친환경에너지, 첨단 농업단지, 자율자동차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한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한다. 지난 2005년 기업도시로 선정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구성지구에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사업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

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참가를 준비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솔라시도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조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최적지임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 전시관은 국내 도시권 중 최대 규모다. 인공태양 조형물, 미래 등 특색 있는 전시물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의 미래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치했다.

백지상태 신도시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스마트관광, 스마트팜, 태양광발전, 마이크로그리드, 자율자동차 등의 미래



기술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전남형 스마트시티 솔라시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양수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개막식에서 "솔라시도가 차별화된 콘셉트로 미래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에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 관심 증폭

"북한 그림 보러 가자" ...단체관람 줄이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8일 평양에서 열리면서 북한미술작가들의 그림이 전시된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은 개막전부터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남북정상회담 분위기에 일반인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날도 16곳의 단체 관람객이 북한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전시관을 찾았다.

서울과 부산·인천의 미술대학 전공자들이 적게는 30여명씩 많게는 50여명이 한꺼번에 북한 그림을 관람했다. 광주 공무원교육원도 교육 프로그램 현

장학습의 하나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관람을 포함했고 이날 북한미술전을 감상했다.

전남 합평 나산초등학교와 영암 시종초등학교 등 일선 초중고교생의 단체관람도 이어졌다.

북한 그림을 처음 접하는 이들 관람객은 북한 작가와 미술에 대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북한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광주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공교롭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 북한 그림을 봤다"며 "다른 현대미술 작품보다 이해하기 쉬운 데다 남북이 만난 날이기도 해서 그림들이 더 가슴에 와 닿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공무원교육원도 교육 프로그램 현

광주비엔날레 측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타고 북한미술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엔날레 관계자는 "북한미술전은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최대 관심 전시전이었는데 남북정상회담까지 겹쳐 관람 문의가 더 들어오고 있다"며 "북한미술전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입장권은 없으며 비엔날레 입장권을 구매하면 북한미술전도 함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정규 전시전의 하나로 북한미술전을 기획하고 북한 그림 22점을 들여왔다.

평소 접하기 힘든 곳의 그림들인 데다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한 대형집체화와 북한의 동양화인 조선화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차아정 기자 chaajung@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전액국비) 장애인직업훈련생모집!!

훈련분야

- 정보분야(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디자인분야(그래픽디자인, 광고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 * 자격증 대비반 운영

입학안내

- 입학자격 : 구직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전형방법

- 입학 선발평가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	수당
1	상담, 직업능력평가, 구인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0원~250,000원
2	직업훈련	월 최대 284,000원
3	집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최대 150만원 (취업 후 근속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

입학문의 Tel. 062)371-7711 (광주파견교육장)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9-4 (코스모스 빌딩 3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광주파견교육장**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